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출 장 자	소 속	평등문화교육연구센터	직 위	부연구위원		성 명	조영주
				전문연구원		성 명	문희영
출장기간	당 초	2019.07.25.-07.27	출장지	당 초	중국 연길		
	변 경			변 경			
출장목적	○ 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의 “조선반도연구원 국제학술회의 2019”에 참석하는 북한 사회과학원 연구자와 네트워크 구축 ○ 2019 두만강포럼 여성분과 개최 업무 협의 ○ 시장경제 도입과 중국 여성 관련 자료 조사						
경비부담	일반과제(북한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사업 추진방안I) 연구비 (약 2,504천원)						
	주최측 부담 없음						
주최기관	중국 연변대학교 조선반도연구원 국제학술회의 조직위원회						
방문기관		연담자		협의사항			
연변대 여성연구중심		김화선 소장		○ 2019두만강포럼 여성분과 개최 건			
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		서옥란 부원장		○ 2019두만강포럼 여성분과 개최 건 ○ 본원과 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 MOU 체결 건			
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		박찬규 원장		○ 본원과 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 MOU 체결 건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2019. 08. 05

출 장 복 명 자 : 조영주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 ☐ 조선반도연구원 국제학술회의 2019 참석
- ☐ 2019 두만강포럼 여성분과 개최 업무 협의
- ☐ 시장경제 도입과 중국여성 관련 자료 조사

보고자 : 조영주 평등문화교육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문희영 평등문화교육연구센터 전문연구원

◎ 출장개요

- 출장지역: 중국 연길 연변대
- 출장자: (본원) 평등문화교육연구센터 조영주(부연구위원), 문희영(전문연구원)
- 방문기간: 7월 25일(출국) - 27일(입국) (2박 3일)
- 비용부담: 본원 일반과제 연구사업비

1. 목적

□ 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의 “조선반도연구원 국제학술회의 2019”에 참석하는 북한 사회과학원 연구자와 네트워크 구축

- 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 국제학술회의에 북한의 사회과학원 연구자들이 참석할 예정임. 이 중 여성 연구자도 포함되어 있음.
- 향후 우리 원의 남북여성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참석한 북한 사회과학원연구자와 접촉이 필요해 보임.
-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북한 사회과학원 연구자와의 접촉을 통해 우리 원의 연구와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관심을 소개하고, 향후 접촉 가능성을 타진함.

□ 2019 두만강포럼 여성분과 개최 업무 협의

- 2019 9월에 개최될 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 주최의 2019 두만강포럼에 연변대 여성연구중심과 본원이 여성분과를 개설하여 학술회의를 진행할 예정임. 두만강포럼 내 여성분과 회의는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개최된 이후 분과 개설이 중단되었음. 본원의 연구자가 2018년 두만강포럼에 참석한 이후 두만강포럼 여성분과 개설을 협의한 결과 2019년 연변대 여성연구중심과 본원이 여성분과를 개설하기로 함.
- 2019 두만강포럼 여성분과 회의는 본원의 일반과제 “북한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사업 방안(Ⅰ)”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됨. 북한에 대한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북한 여성의 교류협력에 대한 수요를 학술회의를 통해 파악하고, 향후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번 출장을 통해 2019년 두만강포럼 여성분과 프로그램 및 참가자 확정, 예산 등에 대한 업무 협의를 진행하도록 함.

□ 시장경제 도입과 중국 여성 관련 자료 조사

- 2019년 본원의 일반과제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사업 방안

(I)”의 주요 연구내용인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이후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사업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중국의 자료를 수집함.

- 중국의 시장경제 도입 이후 중국 여성의 경제적 역량 발휘 여건의 변화와 정책적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조사, 수집함.

2. 출장기간

□ 2019년 7월 25일(출국) - 27일(입국) (2박 3일)

3. 주요 일정

일 자		지 역	일 정	비고
7.25(목)	09:00 -10:30	인천	인천국제공항 → 중국 엔지 공항	OZ351
	12:30-14:30	중국	2019 두만강포럼 여성분과 개최 준비 회의 - 두만강포럼 조직위원회 서옥란 교수 및 연변대 여성연구중심 소장 김화선 교수	연변대 여성연구중심 사무실
	14:30-17:00	중국	연길주도서관 방문 및 자료 수집	연길주도서관
	18:00-20:00	중국	환영만찬 참석	연길 옛마을
7.26(금)	08:00-09:00	중국	개회식 참석	연변대
	09:30-10:30	중국	조선반도연구원과 MOU체결	연변대
	10:30-12:00	중국	중국 여성 관련 자료 수집	연변대
	13:00-17:00	중국	학술회의 참석	연변대
	17:30-18:00	중국	폐회식 참석	연변대
	18:30-21:00	중국	저녁 만찬 참석	연길 파크 카이로스 호텔
7.27(토)	11:30-14:55	중국	중국 엔지공항 → 인천 국제공항	OZ352

4. 주요 내용

□ 7월 25일(목)

○ 2019 두만강포럼 여성분과 개최 준비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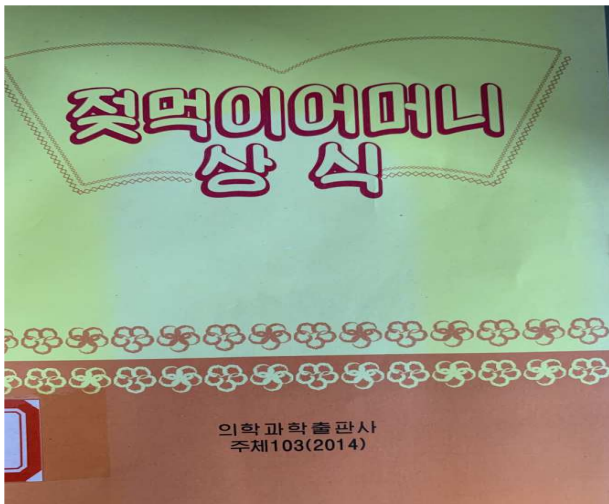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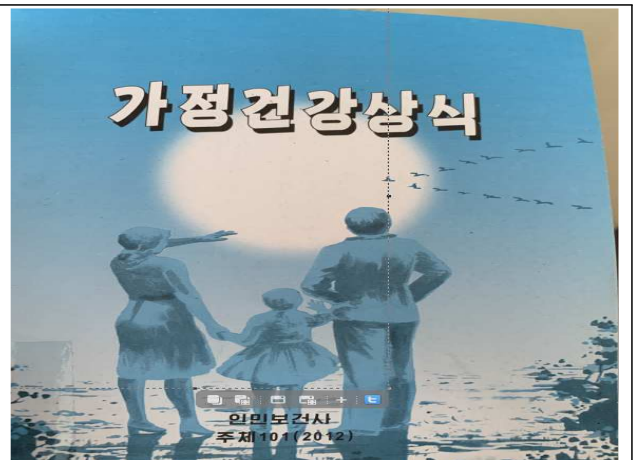
- 참석자: 조영주 부연구위원, 문희영 전문연구원, 서옥란 조선반도연구원 부원장, 김화선 여성연구중심 소장
- 내용: 여성분과 발표자·토론자·사회자 확정, 여성분과 발표 주제 확정, 예산 논의
- 프로그램(안)

전체 주제: 한중조 여성협력의 역사와 교훈			
9월 22일 개막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변대 여성연구중심 소장 김화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권인숙 - 김일성종합대학 대표 		
9월 22일 1세션 사회: 강해순(연변대)	주제	발표	토론
	한중조 여성교류경험과 향후 방향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리인자 (연변대)
	중국의 여성학 발전과 양성평등정책	김화선(연변대)	김일성종합대학
	미정	김일성종합대학	조정아 (통일연구원)
9월 22일 2세션 사회: 석경화(연변대)	미정	김일성종합대학	안명철 (연변대)
	한국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발전	문희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홍매 (연변대)
	조선족여성의경제지위와 발전	리화(연변대)	김일성종합대학
	두만강구역 길림성 녀성 경제지위분석	우소(상해대)	왕창 (동북사대)
9월 23일 3세션 사회: 조정아(통일연구원)	미정	김일성종합대학	마염 (동북사대)
	한국 여성정책의 변화와 협력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미란 (연변대)
	중국 여성정책의 변화와 협력	리인자(연변대)	정은이 (통일연구원)
	길림지구 조선족노년녀성구술생애사	최선향 (장강사법학원)	허명철 (연변대)
종합토론			



○ 연변 주도서관 방문 및 자료 조사

- 북한 여성 및 가족 관련 문헌 조사 및 수집



○ 환영 만찬 참석

- 중국, 일본, 북한, 남한 측 참석자 소개
- 북한 사회과학원 연구사들과 접촉: 사회과학원 여성 학자 및 여성 연구 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사회과학원 전체 인원 200명 중 여성 학자 60명 정도)



□ 7월 26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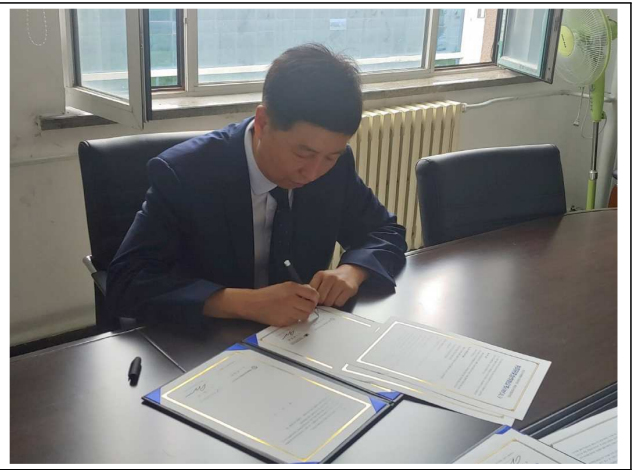
○ 조선반도연구원 국제학술회의 개최식 참석

- 각 주요 주최 및 참석 기관의 개회사, 환영사, 축사 등



○ 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과 MOU체결

- 참석자: 조영주 부연구위원, 문희영 전문연구원, 박찬규 조선반도연구원장, 서옥란 조선반도연구원 부원장
- 내용: MOU체결 및 2019두만강포럼 여성분과 개최 논의, 조선반도연구원 국제학술회의 참여 방안 논의, 연변대 여성 학자와 본원 연구자 간 학자 교류 협의



○ 중국 여성의 경제활동 관련 자료 수집

- 중국 조선반도연구원 사무실에서 중국의 학술자료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중국 여성의 경제활동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다운로드

○ 조선반도연구 국제학술회의 참관

- “조선에서의 건설성과와 인민들의 경제문화적 권리의 향상”(석철원, 북한 사회과학원)
- “전후 1950년대 남북여성의 의복문화: ‘현모양처’와 ‘조선녀성’의 차이와 공통성”(도지인, 건국대)
- 1950년 전후 남북여성의 의복문화를 중심으로 남북의 공통성과 차이를 분석. 전후 복구와 재건 과정에서 체제 경쟁과 공고화가 사람의 삶과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삶에 대한 변화가 성별, 연령별, 세대별, 부문별로 어떤 양상을 보였는지, 남북 주민의 경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함.
- 여성의 의복문화로 나타나는 당국의 여성담론과 생활문화를 바탕으로 각 체제가 근대성과 전통의 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정의하였는지 분석함. 특히 ‘조선옷’ 또는 ‘한복’ 착용에 대한 담론을 중심으로 살펴봄.
- 해방 상황에서 북한 여성에게 조선옷을 입히는 것은 모순적인 의미와 상징성이 있음. 북한은 혁명적 어머니, 혁신적 노동자라는 정체성을 아이러니하게도 매우 봉건적이고 전통적 가치의 구현 속에서 제시하고 유교/가부장적인 용어와 인식의 틀 안에서 여성들에게 혁명적 과업을 수행할 것을 요구함. 조선여성은 자신을 희생하여 국가와 가족에게 봉사하는 신민이 되어야 했고, 사회주의 개조와 혁명의 주체인 여성은 여전히 전통적인 여성상을 내재해야 했다는 것임. 결국 반제국주의와 국가주의 담론으로 정의된 여성해방은 남성의 정의로 규정되는 여성성을 고착화시킴. 여성이 조선옷을 착용한다는 것은 반제국주의 및 사회주의의 의미를 가지면서 북한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반제국주의와는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함. 왜색왜풍 복식을 청산하고 근로인민대중의 노동과 낙천적 생활에 어울리며 당시의 사회적 요구와 민족적 전통에 맞는 옷차림은 조선옷으로 귀결됨. 조선녀성의 조선옷 착용에 대한 장려는 탈식민화, 반제국주의, 민족의 회복이라기 보다는 여성에 대한 남성우월적이고 유교가부장적인 전통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임.
- 해방 이후 남한의 경우도 여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교육의 기회는 점차 확대됨. 문화적 서구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남한의 이상적인 여성상인 ‘현모양처’는 자유롭게 새로운 문화적 트렌드를 경험하고 소비하기 보다는 노동의 효율을 위해서 한복을 벗고 서구적 풍조를

경계하고 전통을 지키는 존재로 남아야 했음. 양장에 대한 수용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서구적 풍조가 확산되는 것은 반전통, 사치, 성적 자유와 같은 부정적인 상징과 결부되었음. 문화적 서구화를 무분별하게 절대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극도로 경계되었는데, 서구화의 비판 여론의 대상은 ‘양장을 한 여성’이었음. 서구화의 비판 대상이 여성으로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은 여성에 대한 의보 담론이 의복 자체에 대한 규율을 넘어 젠더 문제였음을 알 수 있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 설명회”(조순희·한금희, 북한 대외경제성 합영투자개발국)